

Morning Meeting Brief

Daishin's View

[Daishin's View] 2026년 6월 2주차

- **금리:** 금리의 변동성 확대 여지 있으나, 절대 금리의 매력도 ↑ **환율:** 지정학 이슈와 위험선호 후퇴로 종전 전까지는 상방 압력 지속
- **국내 증시:** 6월 변동성은 실적 시즌 노린 비중확대 기회 **글로벌 증시:** 안도(상반월)와 경계(하반월) 사이, 시간에 투자해야하는 국면
- **원자재:** 유가 압력에도 미 하원 압박으로 재총돌 우려 ↓ **부동산:** 고가시장 제외 강보합세 기대, 상업용 기간 조정 장기화 전망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Macro

미국 고용: 아직 인상 허들을 넘지는 않았다

- 미국 고용 모멘텀 빠르고 강한 회복, 연준 긴축 우려 높아져
- 연준은 중등 문제가 완전히 결정되기 전 선블리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워
- 인상 '불가' 보다는 '임박'하지 않음. 당장은 매파적 스탠스로 인내 예상

이정훈. jhoon.lee@daishin.com

Strategy

[주간 퀀틴전시 플랜] 이번에도 기회일까? 핵심은 펀더멘털! 6월 후반부 반전을 준비할 때!

- 채권 금리/달러화 강세로 과열해소 국면. 수급/유동성 이슈도 경계
- 미국 CPI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6월 FOMC까지 변동성 장세 예상
- 매집, 버티기 전략 유효. 2분기 프리어닝 시즌 돌입으로 KOSPI 밸류 재평가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퀀틴전시 플랜] 반도체 조정에 흔들린 KOSPI, 시선은 삼쏘회동으로

- 브로드컴 실적 가이드스 부진으로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 위축
- 젠슨 황 CEO의 삼쏘회동 앞두고 피지컬 AI 랠리 숨 고르기
- 외국인 매도는 리밸런싱, 금융투자가 좌우한 증시 방향성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Global Strategy

[6.5일 미국 증시 급락] 한번은 겪어야 할 과정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다

- 금융시장 시선 이동, '미국 통화 긴축 부상', 10일 美 5월 CPI, 11일 ECB 통화정책회의 등 동일 결과 예상
- 6월~3/4분기 글로벌 증시, 기간 조정 기간. 물가↑, 금리↑, 통화 긴축 꼬리표
- 6.5일 美 증시 급락, '글로벌 통화 긴축 부상+증시 변동성 확대' 과정 시작 시사. 트레이딩 접근 유효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New & Issue] 반도체: 노이즈일 뿐

- Vera Rubin 내 SO-CAMM 탑재량은 축소, 다만, TAM은 불변. 텍스트
-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유. 시스템 다운그레이드 영향 아닐 것.
- 과도한 우려는 기우. 반도체 매수 의견 유지.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2026년 6월 2주차

[금리] 국고 3년 3.50~3.90%

금리의 추가 변동성 확대 여지 있으나, 그만큼 절대 금리의 매력도 높아진다
한국은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 가시화로 금리의 변동성 확대 및 분출 가능성 높아. 다만 단기간에 금리 레벨이 큰 폭으로 상승한데 따른 되돌림 과정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 미국은 고유가에 따른 물가 우려, 기대 인플레이 상승 부담이 장기물 중심으로 크게 반영되고 있음. 연준 내부의 매파적인 기초 확산도 부담 요인이나 금리 급등에 따른 되돌림 시도 가능

[환율] 달러원 환율 1,430~1,560원

지정학 이슈와 위험선호 심리 후퇴 계속, 종전안 타결 전까지는 상방 압력 불가피
달러-원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중 1,549원 터치. 중동 종전 지연 및 외국인 국내주식 매도세, 반도체センチ먼트 악화 등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달러 매도세 실종되면서 가파른 상승.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중동 문제. 종전 합의 시 1,400원대 재진입 예상하나 6월 동안은 상방 압력 계속될 가능성 높음

[국내 증시] KOSPI 7,000~8,800p

6월 변동성은 실적 시즌을 노린 비중확대 기회. 단기 순환매, 3분기 주도주 분할매수
6월 중 과도한 쏠림 현상의 반작용, 주도주의 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 전개는 비중 확대 기회. 단기적으로 실적대비 저평가, 소외주들의 순환매 장세 전개 예상. 미국, 중국 물가지표와 FOMC, ECB, BOJ 통화정책 확인 국면. 6월 중순 이후 2분기 프리어닝 시즌, 7월 중순 실적 시즌 동안 실적 전망 상향 조정 = KOSPI 상승추세 재개

[글로벌 증시] S&P500 7,000 ~ 8,400p

6월 글로벌 증시, 안도(상반월)와 경계(하반월) 사이. 시간에 투자해야 하는 국면
이란 전쟁 종전 가시화(늦어져도 6월 상반월), 상반월 위험자산 선호심리 지속. 다만 종전 후에도 시차를 둔 물가 상승 불가피. 주요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 및 금리 인상 필요성 요구하는 중앙은행 내 소수의견 대두. 하반기, 증시의 상승세를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원자재] WTI 80~105\$/bbl.

여전한 중동발 유가 상방 변동성. 다만, 미 하원의 압박으로 이란과 재충돌 가능성 ↓
미국-이란은 휴전 중이나 쿠웨이트 공항 + 역내 미군 시설에 대한 이란의 공격으로 리스크 잔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휴전 합의에도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할 수 없다며 불확실성 ↑. 다만, 미국-이란 재충돌 가능성 여전히 제한적. 미 하원은 이란전 중단 결의안 통과,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찬성하면서 정치적 부담 ↑ 급감한 석유 재고(인플레이 압력 ↑) 역시 부담 ↑

[부동산] 주택 : 강보합, 상업 : 약보합

주택 세제 영향 받는 고가시장 제외 강보합세 기대, 상업용 기간 조정 장기화 전망
주택 : 세제 강화 수준에 따라 고가 시장 추가 조정 가능하나, 전세기울 높은 중저가 지역 및 구매력 급증한 수도권 동남권 지역 가격 상승 지속 예상, 임대 시장은 전반적 강세 전망

상업 : 시장 금리 상승과 오피스 임대 시장 둔화로 보수적인 관점 필요, 물류 섹터는 우량 자산 중심으로 임대 시장 회복 나타나 조정 시 선별/분산 투자 의견 유지

미국 고용: 아직 인상 허들을 넘지는 않았다

- 미국 고용 모멘텀 빠르고 강한 회복, 연준 긴축 우려 높아져
- 연준은 중동 문제가 완전히 결정되기 전 선불리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워
- 인상 '불가' 보다는 '임박'하지 않음. 당장은 매파적 스탠스로 인내 예상

미국 고용 회복, 예상보다 더 빠르고 강해

미국 5월 비농업 취업자는 +17.2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 +8.5만 명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3개월 연속 서프라이즈다. 여기에 지난 3~4월 고용이 합산 +9.3만 명 상향 조정된 것도 시장을 더 놀라게 했다. 실업률은 4.3%를 유지했고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3.4%YoY 4월(+3.6%YoY) 대비 둔화되었다.

최근 3개월 평균 취업자 증가는 +18.8만 명으로, 2024년 3월 이후 최대치이다. 당사는 지난 4월 고용 보고서 발표 당시 선제적인 수요 조달 효과나 관세 불확실성 경감 등이 미국 고용 회복을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고용 회복의 속도나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

산업별로 보면 정부 부문의 취업자가 +5.2만 명으로 약 2년 만의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민간 취업자는 +12.0만 명의 양호한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3월 이후로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5월에는 도소매업의 취업자가 3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고 레저 부문은 증가세가 확대되었는데, 레저 부문은 이 달 예정된 월드컵 개최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가 작용했을 수 있다.

연준은 투자자처럼 기대에 기반해 의사결정 불가, 일단은 전략적 인내

당장 이번주 발표되는 CPI가 4%대 상승률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번 고용 보고서는 긴축 우려를 키우기 충분했다. 지금의 고용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합리적이다. 다만 금리 인상의 실제 허들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

고용이 연초 이후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구인 데이터 등을 보면 완전한 정상 궤도에 들어섰는지는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나 가계의 재무 여건도 2022년과는 다르다. 여기에 시장이 느끼는 것보다 연준이 느끼는 중동 정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클 수 있다. 국제유가는 빠른 재고 소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순항 중인 이유다. 만에 하나 사태가 더 장기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추가 급등할 경우에는 결국 성장에 큰 하방 압력이 된다. 이미 시장금리는 지난해 9월 금리 인하 분을 모두 되돌렸다.

연준은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처럼 '결국에는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Core 인플레이션 영향이 정말로 뚜렷해지거나, 혹은 중동 문제의 방향성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하며 전략적 인내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다. 최근 연준 내 매파 인사들이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 인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고 있으며 매파 이외의 인사들은 완화 편향을 제거하는 데 동의한 정도이다.

이번에도 기회일까? 핵심은 펀더멘털! 6월 후반부 반전을 준비할 때!

- 채권 금리/달러화 강세로 과열해소 국면. 수급/유동성 이슈도 경계
- 미국 CPI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6월 FOMC까지 변동성 장세 예상
- 매집, 버티기 전략 유효. 2분기 프리어닝 시즌 돌입으로 KOSPI 밸류 재평가

채권 금리/달러화 강세로 과열해소 국면. 수급/유동성 이슈도 경계

브로드컴 발 시 수익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주말 발표된 **고용 서프라이즈가 긴축 우려를 지극, 채권 금리 반등, 달러화 강세를 야기**. 이로 인해 고밸류, 빅테크 종목들 중심으로 급락세 전개. 나스닥이 4.2% 급락, 그 중심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10.3% 폭락이 자리. 한국 증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지난 주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GDR 각각 20.2%, 15.4% 폭락, 미국 상장 한국 ETF도 14.1% 레벨다운. 야간 선물 8% 급락했는데 이는 하한가. 야간선물 1,194p 기준 **KOSPI는 7,500선 이하에서 월요일 장을 시작할 가능성 높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당분간 과열해소, 매물소화 국면** 전개 예상. 1) 단기 과열이 심해져왔고, 2)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중기, 단기 모두 Risk Off 시그널로 전환. 3) VIX 또한 저점권(15% 수준)에서 급반등하며 단숨에 20% 상회. 변동성 확대 국면 진입 시사

게다가 **KOSPI는 이번주 수급/유동성 이슈 가세**. 12일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고, 11일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로 파생 수급 영향력 확대 예상. 가뜰이나 이례적으로 극심한 쏠림현상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KOSPI 레벨업을 주도해왔던 반도체, IT하드웨어, 가전 등 시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변동성 확대의 중심에 자리함**에 따라 투자심리는 극도로 위축되고, 이로 인한 낙폭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

미국 CPI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6월 FOMC까지 변동성 장세 예상

이번주 10일 미국 5월 CPI, 11일 PPI 발표 예정. CPI는 4.2%, PPI는 6.4%로 레벨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Core CPI(예상치 2.9%), Core PPI(예상치 5.4%) 결과가 중요**.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가 서비스, Core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가 향후 물가 수준, 방향성에 중요하기 때문. Core 물가가 예상에 부합하거나, 하회할 경우 증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 만약, **Core 물가까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다음주 18일 6월 FOMC까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 높음**

미국 증시의 경우 **1차적으로는 50일선 전후(S&P500 7,156p, 나스닥 24,773p)에서 지지력 확보** 여부가 중요. 동 지수대 이탈시 올해 1월 ~ 2월 박스권과 200일 이동평균선(S&P500 6,858p, 나스닥 23,322p)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KOSPI는 7,000 ~ 7,500선에서 지지력 확보 여부 확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의미있는 지수대이자, 40일, 5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 4월 저점에서 상승 폭의 50% 되돌림 수준이 7,000선 이기도 함. 선행 PER 7배 수준이 7,296p이고, **KOSPI 7,000선은 선행 6.71배로 금융위기 당시 저점 6.27배 이후 최저치**. 극심한 저평가 수준에 재진입한 KOSPI 밸류에이션 매력 재평가 가능

매집, 버티기 전략 유효. 2분기 프리어닝 시즌 돌입으로 KOSPI 밸류 재평가

이번주 미국 CPI와 PPI 결과와 다음주 FOMC에서 점도표 수준을 확인하면서 1) 이번주 미국채 10년물리 4.67% 넘어서는지, 2) 외국인 선물 매도 강화 or 매수 전환 여부(누적 순매수 전저점 권), 3) 금융투자 매수 지속 또는 매도 전환/강화 여부. 4) 실적 전망 상황 조정 재개 여부 주목

1 ~ 2주 동안 극심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매도 실익은 없다고 판단.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해 매집하거나 버티기 전략이 유효**. 6월 후반부 **2분기 프리어닝 시즌 돌입과 함께 KOSPI 밸류 매력 재평가 예상**.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재, 금융, 내수주의 상대적 안정성 확보**. 반등 시도는 가능할 전망이다. 단기 변동성을 거친 뒤에는 실적 모멘텀을 근거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전력기기 등 시 밸류체인 관련주와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분위기 반전 모색, 상승 추세 재개 예상**

반도체 조정에 흔들린 KOSPI, 시선은 삼소회동으로

- 브로드컴 실적 가이던스 부진으로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 위축
- 젠슨 황 CEO의 삼소회동 앞두고 피지컬 AI 랠리 숨 고르기
- 외국인 매도는 리밸런싱, 금융투자가 좌우한 증시 방향성

브로드컴 실적 가이던스 부진으로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 위축

전일 미국 증시에서 브로드컴은 FY2026 2분기 실적으로 매출 222억달러(+48% YOY), 영업이익 149억달러(+52% YOY)를 발표. 핵심인 AI 매출은 전년대비 +143% 성장하며 컨센서스에 부합. 다만 3분기 AI 매출 가이던스가 160억 달러로 예상치 172억달러를 하회

브로드컴의 부진한 가이던스로 반도체 이익 전망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 미국 증시에서 브로드컴(-12.6%), 마이크론(-7.7%), AMD(-3.6%), 샌디스크(-3.9%) 등 반도체 업종 낙폭 뚜렷.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에도 부정적으로 작용. 동시에 최근 급등으로 단기 과열 부담이 누적됐던 반도체 업종의 차익실현 압력 확대

반도체: 삼성전자(-6.4%), SK하이닉스(-9.9%), SK스퀘어(-7.6%)

젠슨 황 CEO의 삼소회동 앞두고 피지컬 AI 랠리 숨 고르기

금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오후 1시 20분경 한국에 도착. 저녁에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 '삼소회동' 진행할 예정. 젠슨 황 CEO는 인터뷰에서 현대차, LG, SK, 삼성, NAVER 등 다양한 기업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힘. 또한 한국의 유망 산업으로 로봇틱스를 언급하며 R&D 투자에 매우 적합하다고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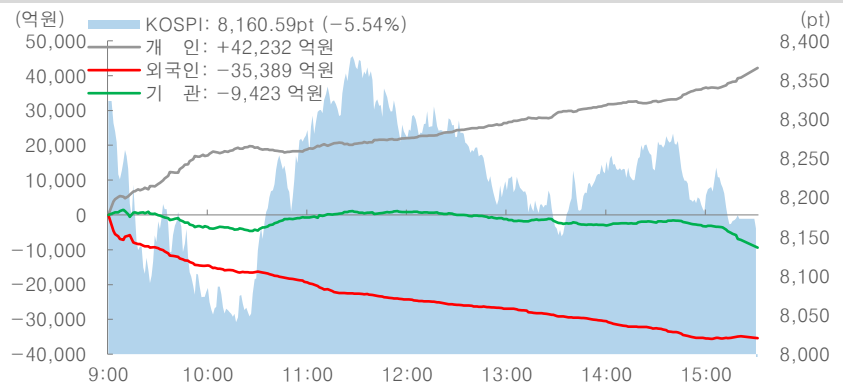
엔비디아 협력 및 피지컬 AI 모멘텀으로 관련주 소폭 반등. 그러나 기대감이 선반영 되었다는 인식과 위험자산 선호심리 위축으로 상승폭은 제한. 재차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삼소회동을 대기

피지컬 AI: 두산로보틱스(-11.2%), LG전자(-7.6%), LG씨엔에스(-7.0%)

외국인 매도는 리밸런싱, 금융투자가 좌우한 증시 방향성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20거래일 연속 순매도했고, 누적 순매도 규모는 70조원을 돌파.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피 지분율은 현재 39%로 오히려 상승세를 기록. 결국 외국인 순매도는 주주주 급등에 따른 리밸런싱 차원의 매물 출회로 해석. 달러-원 환율은 급등세를 시현하며 장 중 1,550원에 근접했지만, 소폭 하락하며 1,540원선을 하회. 한편 금융투자 수급에 코스피 연동되는 흐름. 장 초반 금융투자 매도가 축소되면서 코스피 반등한 후, 순매도 확대되면서 코스피는 약세 마감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6.5일 미국 증시 급락]

한번은 겪어야 할 과정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다

- 금융시장 시선 이동, '미국 통화 긴축 부상' 10일 5월 CPI, 11일 ECB 동일 결과
- 6월~3/4분기 글로벌 증시, 기간 조정 기간. 물가↑, 금리↑, 통화 긴축 꼬리표
- 6.5일 美 증시 급락. '글로벌 통화 긴축 부상+ 증시 변동성 확대' 과정 시작 시사

예상보다 빨라진 금융시장 시선 이동 '미국 통화 긴축 부상'

6월 글로벌 증시에 대한 기존 경로는 5일 美 5월 고용, 10일 美 5월 CPI/근원, 11일 ECB 금리 인상 확인 후, 6월 FOMC(현지시각 16~17일)를 앞두고 '글로벌 통화 긴축 부상' 이 증시 노이즈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美 5월 고용 결과가 긴축 우려를 고개 들게 하면서 앞으로 발표되는 10일 美 5월 CPI/근원, 11일 ECB 금리 인상을 확인할 때마다 연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서 시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금융시장 우려를 확산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6월 상반기, 이란 전쟁 종전 소식(가정)은 증시 추세를 결정하던 기존 위상에서, 이제는 증시 반등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로 영향력이 크게 축소될 것이다.

26.6월~3/4분기 글로벌 증시, 기간 조정 기간. 물가↑, 금리↑, 통화 긴축 꼬리표

6월 상반기 이란 전쟁이 종전된다고 하더라도 물가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2~3달의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이다. 5월 말~9월 초, 미국 드라이빙 시즌까지 맞물리면서 8~9월까지의 공급 측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이에 연동되는 장기 금리 상승을 빈번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

4월 PCE(3.8% YoY) 기준, 통화 긴축 여부와 증시 방향성을 가능할 수 있는 실질정책금리는 (-)로 전환했다. 그동안은 정책금리(현 3.50~3.75%)가 PCE 보다 높아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했고, 미국 증시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4월 PCE를 기점으로 물가 불안 및 증시 방향성은 하방 압력이 높아지는 국면에 진입했다.

최종도달금리 여부를 확인하는 실질정책금리와 실질중립금리 간의 관계는 3월 PCE(3.5% YoY)부터 실질정책금리(0.00~0.25%)가 실질중립금리(1.1%)를 하회하기 시작해, 연준의 금리 인하 환경은 사라졌다. 올해 3/4분기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 미부합과 고용, 물가 등 경제지표 확인을 통해 금융시장 내 확산되는 금리 인상 우려로 위험자산 선호심리는 제약될 것이다.

6.5일 미국 증시 급락. 올해 한번은 겪어야 할 '글로벌 통화 긴축부상' 이에 연동되는 증시 변동성 확대라는 과정이 시작됐음을 보여줌. 이제부터는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트레이딩 접근 유효

26년 하반기 전망 리포트(5.22일 발간. 글로벌전략: 공존 /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를 통해 하반기 증시 경로를 3/4분기 기간 조정, 4/4분기 상승으로 제시했다. 6.5일 미국 증시 급락은 올해 한번은 겪어야 할 '글로벌 통화 긴축 부상' 이에 연동되는 증시 변동성 확대라는 과정이 시작됐음을 보여줬다. 6.5일 미국 증시 급락 후,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겠지만 주식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트레이딩 접근이, 6월~3/4분기 동안 전술적으로 유효할 전략이 될 것이다.

반도체

노이즈일 뿐

류형근 hyungkeun.ryu@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삼성전자	Buy	560,000원
SK하이닉스	Buy	3,400,000원

- Vera Rubin 내 SO-CAMM 탑재량은 축소. 다만, TAM은 불변.
-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유. 시스템 다운그레이드 영향 아닐 것.
- 과도한 우려는 기우. 반도체 매수의견 유지.

Vera Rubin 내 SO-CAMM 탑재량 축소 관련

외신에서 Vera Rubin 내 SO-CAMM 탑재량 축소를 언급. 때아닌 수요 둔화 우려가 불어지며, 전일 메모리반도체 주가 하락에 일조한 것으로 추정. 이에 대한 당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당사 Channel Check에 따르면, Vera Rubin향 SO-CAMM 탑재량은 기존 1,536억 GB (192GB x 8)에서 768억 GB (96GB x 8)로 하향. 최근 POR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
- 중요한 점이 있다면, Nvidia CPU향 DRAM TAM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 한국 메모리반도체의 LPDDR5x 단품 (Grace CPU) 및 SO-CAMM (Vera CPU) 향 합산 공급량의 경우, 2026년 180억 Gb에서 2027년 290억 Gb로 성장.
- 대당 탑재량 축소에도 전체 TAM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집중할 때. 이는 시장 예상 대비 더 많은 GPU의 출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
- 실제로, AI 병목 해소를 위한 Supply Chain 단의 노력은 강화되고 있는 상황. TSMC의 경우, 시장 예상 대비 더 많은 CoWoS Capa 증설을 추진 중. 2027년 말까지의 증설 폭이 상향되는 것으로 추정.

Key Implication: 노이즈는 지나간다

결국, 금번 탑재량 축소 결정은 메모리반도체 업계의 심각한 공급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시스템 스펙 Downgrade 차원에서의 변화라 볼 수 없으며, 과도한 우려를 할 이슈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

AI 시대에서 나타난 수요와 공급의 변화로, 반도체 힘의 Hegemony는 메모리 반도체로 이동. 역대 최대 사이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때. 금번 이슈는 사이클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상적 이슈 수준에 불과.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